



# 대전광역시 멸종위기어류 분포와 하천 복원방안

- 대전의 주요 하천에서 실시한 생태모니터링을 통해 갑천과 유등천에서 미호종개와 감돌고기 등 2종의 멸종 위기어류 서식을 확인하였으나, 분포권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
- 미호종개와 감돌고기는 하천 지표종 및 우산종으로, 2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 복원 노력을 통해 이 종들 뿐 아니라 다른 생물의 서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

## 01 대전광역시 멸종위기어류의 분포 현황

-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변화관찰조사, 깃대종 모니터링,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을 통해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서 미호종개와 감돌고기의 서식을 확인
- 갑천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1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분포권이 감소 추세
  - 2010년 이전에는 갑천 상류 수역인 유성구 방동과 세동 일대를 포함하여 금강 분류 구간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폭넓게 분포하였으나, 최근에는 월평동과 도안동 일대에서만 소수의 개체 확인
- 유등천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분포권이 단절
  - 유등천의 제1사정교와 수련교 사이의 일부 구간에 단절되어 분포

### 미호종개와 감돌고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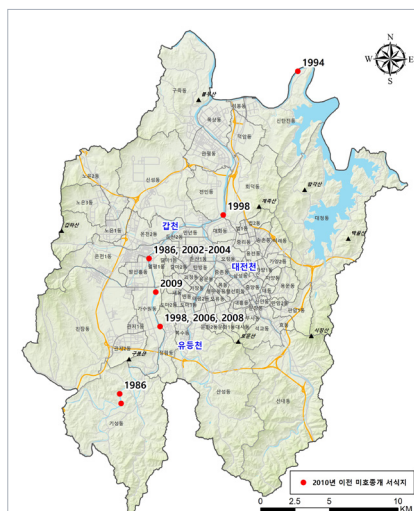


갑천의 미호종개



유등천의 감돌고기

### 미호종개 분포 서식지 변화



2010년 이전의 미호종개 분포



2010년 이후의 미호종개 분포

### 유등천의 감돌고기 분포 서식지



## 02 대전광역시 멸종위기어류 보전 및 하천 복원 방안

- **갑천 미호종개의 경우 분포권 감소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급감**
  - 개체군 크기가 적어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절멸 가능성이 높아 개체수 보강이 시급
  - 매년 소량의 개체군을 서식지 일대에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절멸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
  - 또한,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하상 공사 및 교각 등의 설치로 모래가 유실되며 펄이 덮고 있어 서식지 복원이 필요
- **유등천 감돌고기의 경우 분포권이 좁고 서식지는 단절**
  - 유등천 감돌고기의 경우에도 서식지 내에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개체수 절멸을 사전에 방지
  - 이와 함께 깎지 산란장에 침입하여 탁란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란숙주인 깎지의 보존 및 인공증식 개체의 추가적 방류 필요
  - 감돌고기 서식지 일대의 하상정비사업을 가능한 실시하지 않고 현재 하상을 유지하되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 여울부 형성 및 암반 조성 등의 서식지 복원 필요

## 03 시사점

- **갑천 미호종개와 유등천 감돌고기 개체수 보강**
  - 매년 500개체 정도의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절멸을 막고 자연 개체수 증가 유도
- **미호종개와 감돌고기의 지속적인 서식을 위한 하천 복원**
  - 미호종개: 보 제거, 0.5mm 내외의 모래하상 조성 및 유실 방지 노력
  - 감돌고기: 보 제거, 암반 및 호박돌 이상의 하상 형성, 상류부 부유물질 최소화
- **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분포 및 개체 밀도 파악**
  -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변화관찰조사, 깃대종 모니터링,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2종의 분포와 개체 밀도의 변화 파악 및 보전방안 제시

### 미호종개와 감돌고기 서식 환경



미호종개의 서식 환경



감돌고기의 서식 환경

\*자료출처: 이은재(2016), 「대전시 서식 미호종개 분포 및 복원 방안 연구」, 대전세종연구원  
대전광역시(2016), 「깃대종 모니터링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」  
대전광역시(2020), 「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」





# 11월 대전·세종 이슈 뉴스기사 분석

## 지금 대전·세종은? 20.11.1.-11.30.

### 코로나19의 '3차 대유행' 시작...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반대, 11월의 대전

-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3,544개의 키워드를 분석
- 11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우려하던 '3차 대유행'이 시작됨
- 이에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함
-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문제도 연일 이슈가 되면서 10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



[TOP 1] 코로나19

-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집단감염과 잠복이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
- 특히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고, 수도권 외 다른 지역도 거리두기가 1.5단계로 상향 조정됨

[TOP 2] 중소벤처기업부

-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백지화와 대전 진류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
- 행안부는 중기부 이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확정하며 행정철차를 진행
- 지역 여론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이슈가 집중되면서 여론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청회까지 최대한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사정이라고 언급

[TOP 3] 확진자

- 11월 한 달 동안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43번부터 504번까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
- 이 중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60명은 모두 지역감염자
- 지역감염자 중 22명은 부산, 경산, 익산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

※ 위 키워드의 내용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반영한 것임

대전광역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

순위	10월		11월	
	키워드	빈도수	키워드	빈도수
1	코로나19	450+	코로나19	450+
2	온택트	418	중소벤처기업부	411
3	중소벤처기업부	283	확진자	253
4	한국판뉴딜	194	온라인	240
5	국가균형발전	186	한국판뉴딜	186

### 여전히 식지 않는 코로나19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지역, 11월의 세종

-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1,141개의 키워드를 분석
- 11월의 세종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가장 큰 화두였으며,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균형발전 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 내 주된 관심이 지난 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
- 세종시도 한 달 동안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함



[TOP 1] 코로나19

-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종시도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함(지역별로는 최저 수준)
- 이에 세종시는 감염병 관리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'세종시 감염병 관리지원단'을 출범
-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국내외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·DB구축,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·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

[TOP 3] 국가균형발전

- 세종시는 '행정수도', '국회 세종의사당', '중기부' 등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
-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,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'세종형 뉴딜'을 일리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사를 진행

[TOP 5] 확진자

- 11월 한 달 동안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83번부터 102번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
- 이 중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8명은 지역감염자
- 지역감염자 중 7명은 세종시 보람동 소재의 한 PC방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

※ 위의 키워드는 높은 빈도 순으로 선정되지만,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되거나 유사한 내용 및 중복되는 키워드는 선정에서 제외함

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

순위	10월		11월	
	키워드	빈도수	키워드	빈도수
1	코로나19	286	코로나19	308
2	중소벤처기업부	182	중소벤처기업부	266
3	국가균형발전	146	국가균형발전	137
4	온택트	117	행정수도	118
5	국립세종수목원	106	확진자	115